



[삼성이 꼽은 미래기술]
뇌·반도체·딥러닝
'삶의 질 향상' 연구
10년 밑그림
03



코스피 2021.73 (+1.04)

코스닥 627.21 (+5.37)

금리 1.23 (+0.02) (국고채 3년)

환율 1196.60 (-0.20) (원·달러) (7일)

헬릭 임상 3상 통과, 내부정보 유출 논란

공매도 이어 매수차익 外人, 사전에 알았나?

임상 3상 유효성 입증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29.99% 올라
개미, 눈물의 손절매로 고개
외인, 저가매수로 차익 예상

임상 3상 관련 호재 공시로 헬릭스미스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최근 외국인의 헬릭스미스 매수에 대해 시장에선 내부정보가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시 개미(개인투자자)는 올고, 외인(외국인투자자)은 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7일 주식시장에서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9만3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헬릭스미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엔젤크스'(VM202-DPN) 임상 3-1B상 자체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3-1B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별도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과정을 거친 독립적인 두 번째 임상 3상"이라며 "3-1상에 참여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VM2020 첫 투여 후 12개월 시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 시험 결과 주평가와 부평가 지표인 12개월 안전성과 유효성 지표 모두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며 "뛰어난 안전성을 보였고 유효성에 해당하는 통증 감소 효과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헬릭스미스 호재에 개미와 외국인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

이다. 개미는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눈물의 손절매'를 했고, 외국인은 공매도로 쏠쏠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해서 차익을 얻는 공매도로 이미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지자 저가로 매수해 최근 주가 상승을 통해 다시 한번 차익을 챙길 것 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3일 이후보물질의 임상 3-1상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위약(placebo)과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20만원을 넘어서던 주가가 단숨에 고꾸라졌다. 25일에는 10만원도 깨지면서 8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개인은 헬릭스미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순매도 금액은 330억2400만원이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매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은 헬릭스미스 주식을 163억86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미리 주식을 샀다가 보다는 공매도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4일 2932억7796만원어치 쌓여있던 공매도 물량은 지난 1일 기준 1404억9688만원으로 절반 이상 해소된 상태다.

/손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서울 전역서 '와이파이' 터진다

市, 3년간 총 1027억원 투입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1인 통신비 63만원 절약 기대

"기우야 와이파이 잡으려면 핸드폰을 높게 들어야 돼 높게. 구석구석 살살 이 뒤져야 돼"

영화 '기생충'의 기택(송강호)네 가족 같은 와이파이 난민을 구조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을 설치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민 1인당 월 5만2000원의 통신비

를 절약할 수 있게 돼 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10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4237km에 달하는 자가통신망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의 회선을 빌리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이다. 임대망 대비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망

이용자가 폭증할 경우 인터넷 접속이 잘 끊기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인터넷 회선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높은 대역폭을 구매하면 된다"며 "와이파이 6은 동시접속 기능과 데이터 처리량이 기존 와이파이 5 보다 최대 4배 정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시민 1인당 연간 최대 약 63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가을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 영업익 7811억… 가전 호황에 '깜짝 실적'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LG전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가전 사업 호조와 함께 휴대폰 사업 효율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매출액 15조6990억원, 영업이익 7811억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매출액(15조4270억원)보다 1.8%, 전년 영업이익(7488억원)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출액은 전분기(15조6292억원)보다 0.4%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전기(6523억원)대비 19.7%나 상승했다.

특히 올해 누적 매출액은 46조2433

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45조5694억원)보다도 1.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 3분기 에어컨과 세탁기, 건조기 등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한 데다, V50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도 컸다고 보고있다.

특히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부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웅 기자 juk@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로 이어지도록

한화의 67년에 당연한 내일이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내일의 지구를 위해 친환경솔루션을 고민하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독자기술개발에 힘을 쏟으며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67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한화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Hanwha



67th Anniversary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67주년